

◆머느리권씨 열전 14-2

정일당 강지덕의 어머니

권씨 (시중공파31세,청강거사 권서응의 딸, 옥소玉所 권섭의 외증손녀)

시중공파 권상하, 권섭과 강희맹 집안

여기서 왜? '머느리 권씨' 시리즈인데 강씨가 주인공으로 언급되나 하는 것이다. 그것은 그녀의 어머니가 권씨이고 이 권씨 가문의 재능이 유전된 사실을 말하기 위한 것이다. 아버지 강재수의 진보적(?) 교육관도 한 몫했고 이를 내조한 '머느리 권씨'의 공도 크다는 것이다.

그녀의 아버지는 강재수(진주,姜在洙), 조부는 강심환(姜心煥), 형제는 강일회(姜日會), 강운희(姜雲會)이다. 여기서 강재수가 강희맹(姜希孟,1424-1483)의 12세 후손이며 강희맹의 사위가 권만형이고 그 6세손이 권섭이니 이 또한 기묘한 인연이다. 강희맹이 중국사신으로 가서 가져온 연꽃 씨앗 전당홍(錢塘紅)은 시흥 관곡지(官谷池)에 만개하는 데 이를 물려받은 것이 사위이고 12世孫 권용정(權用正)이 1846년 안산군수로 와서 대대적으로 정비한 것이다. 옥소 권섭(權燮,1671-1759)도 제천 '신동'에 내려와 연꽃밭을 조성한 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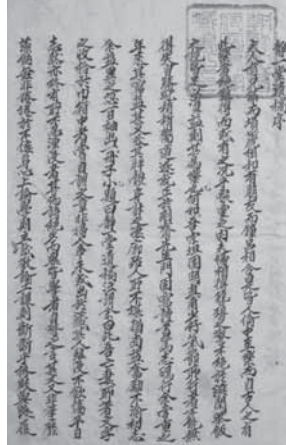
즉 장인 강희맹, 사위 권만형 구도가 9세를 지나서 장인 권서응(1708-1780), 사위 강재수로 자리바꿈하여 다시 만났다는 것이다. 기묘한 인연이 아닐 수 없다. 여기서 송강,고산,노계와 함께 최근 조선 4대 문학가로 인정 받고 있는 옥소 권섭의 외증손녀가 그 유전자를 가지고 문장가인 '사숙재집(私淑齋集)'의 저자 강희맹의 후손과 만나 시·서·화에 뛰어난 정일당을 낳으니 대단한 인연법인 것이다.

정일당은 서예에도 일가견이 있는 명필로 알려져 있다. 즉, 정일당은 부계의 문인 전통과 모계의 성리학 기호학과 전통을 오롯이 이어받은 셈이다.

그러면 정일당의 외가인 안동권씨 시중공파는 권상하, 권상명 형제의 우복 섬은 말할 것도 없지만 이후 벼슬을 버리고 안민낙도의 길을 걷는다. 이들은 현직에서는 차관급으로 끝났으나 총리급 발령을 받고도 나가지 않고 은둔한다. 학자로서는 대제학도 마다한 큰 그릇이었다.

정일당의 친가도 상당한 집안이나 조부 강심환이 제천의 처가에 정착하면서 같은 처지가 된다. 아마 같은 제천이고 또 비슷한 잔반(殘班)급이고 같은 마을이니 혼인한 것으로 보인다.

권씨부인의 가계는 권상하,권섭이 유망하고 그 내용은 알려진 게 많아서 이름만 나열해보자면



[32세 강재수 부인, 정일당 모친 권씨-31세 권서응(선비)-30세 권초생(통덕랑,명예직 5품급) - 29세 권섭(백취옹,문장가)-28세 권상명(통덕랑)]이다.

권씨 부인의 사돈 되는 강정일당 남편 윤광연가계는 [祖父 윤심진(尹心震, 漢城右尹知中樞府事父 윤동엽(尹東燁) - 兄 윤광국(尹光國)]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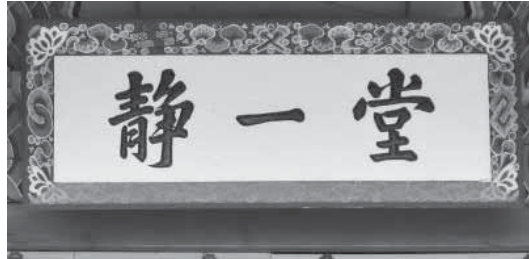
영조48년 1772년 10월15일 제천 근유면 신촌(신동마을)에서 태어날 때 어머니 권씨의 태몽은 돌아가신 친정 어머니 연안이씨 (1705-1773)가 꿈에 나타나서 '여기에 덕을 갖춘 사람이 앉아 있으니 이제 너에게 부탁한다'라는 말을 하고 사라지는 꿈을 꾸고 낳다고 하니 정일당의 아명을 '지덕(至德, 지극한 덕)'이라고 지었다. 그런데 여기서 정일당이 태어나고도 그 외조모가 1년 뒤까지 살아 있는 것으로 기록에 나오는 데 이는 밝혀볼 문제이지만 그냥 정경도로 알고 가면 된다. '햇볕에 쪼이면 역사가 되고 달빛에 물들면 전설이 된다'고 했으니 전설은 민중의 진실이요 집단지성의 산물이나 역사는 일면 기록의 자기중심적 왜곡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크게 벼슬을 하지 못해 사실상 몰락한 양반이었던 강씨의 아버지 강재수는 가난했지만 어린 딸에게 글을 가르쳤다. 당시 여자들은 학문을 하고 글을 쓴다고 해도 시문이나 썼지 학문을 깊이 있게 연구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니었다. 대단히 선구자적 시각을 가진 사람이다. '인격은 그 사람의 재산과 지위에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결국 수백년이 지난 시점에서 누가 역사의 한자락을 장식하는가 하는 문제와도 같다.

강지덕은 '성품이 곧고 조용한 성격으로 단정하였으며 기쁘거나 노여운 것을 얼굴에 나타내지 않고 희로애락을 표출하지 않고 집 밖을 나가지 않았으며 몸이 약하고 여성의 본분과 효도를 알아서 잘했고 부모가 아프면 항시 대기 하면서 공양하였다. 어머니 권씨의 길쌈과 바느질을 도와서 가사를 돕고 부친이 17살 때 돌아가시자 2남 1녀(강일회, 강운희, 강지덕)의 외동딸로서 삼년상을 그 어려운 가정환경에서도 치루는 지극함을 보였다'라는 기록이 있다.

파평윤씨덕 머느리 정일당

19살에 6살 연하 파평 윤씨 윤관 장군의 후손 윤광현과 혼인하니 시어머니도 유명한 천안 정씨 지일당(只一堂)인데 학문과 시문이 높아 나중에 정일당과 시로써 대화하는 정도였다고 한다. 여기서 정일당의 아홉이중 누구라도 살았다면 그 문학적 재능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크다. 인연소생이라 '하나를 잃으면 하나를 얻는 법'이니 '내 것 아닌 것은 억지로 잡아도 도망가고 내것인 것은 막아



도 막아도 들어오는 것이라니...' 이는 인연법은 무상하다는 것이다.

여기서 어린 남편은 장사를 한다고 돌아다니다가 그나마 제전집도 다 날리고 심지어 17년 뒤 시어머니 돌아가시고도 상복 입고 지방 장사를 다닐 지경이었다. 이때 정일당은 남편에게 '가난하더라도 학문을 하자'고 애소하면서 생계는 자신이 바느질로 이어가는 데 결국 이것 때문에 아홉 자녀가 하나도 살아남지 못했을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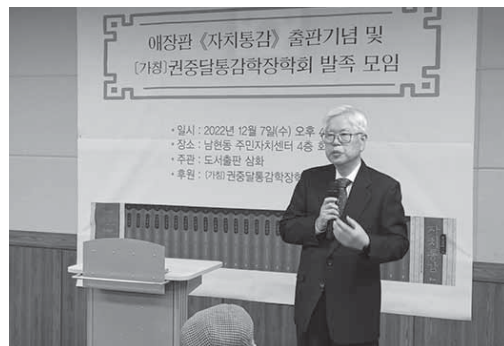
아파도 약은 고사하고 굶기가 다반사였고 당시 유아 사망이 절반이라 해도 이견 너무 한 경우가 아닐 수 없다.

여기서 어린 남편은 장사한다고 돌아다니니 심지어 17년 뒤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상복 입고 지방 장사를 다닐 지경이었다. 이때 남편에게 가난하더라도 학문을 하자고 애소 하면서 생계는 자신이 바느질로 이어가는 데 결국 이것 때문에 아홉 자녀가 하나도 살아남지 못했을 수도 있다. 이때 남편에게 준 시이다.

여중군자가 가는 길 부부합도
 夫夫子(정부자) 남편께 드리나이다.
 妾愧無才德(침괴무재덕) 나는 부끄럽게도 재주와 덕이 없지만
 幼年學綴針(유년학실침) 어린 나이에 실과 바늘을 배웠답니다.
 眞工須自勉(진공수자면) 참된 공리는 모름지기 스스로 힘써서
 衣食莫關心(의식막관심) 먹고 입는 것에 마음을 편여치 마세요.

그 뒤로 약삭같이 노력하여 동대문 밖 송인동에서 서울역 뒤 중림동의 마당 있는 집으로 이사로 가고 한다. 하지만 남편은 과거시험은 연속 안되고 그저 학문수업을 한다지만 그것도 수준은 평범하여 서당 훈장 노릇으로 가계에 보탬이 조금되고 정일당도 일취월장 주침야면(晝針夜勉), 낮엔 바느질 밤에는 남편과 유학의 학문을 공부하고 시서화(詩書畵)에 몰두한다. (다음호에 계속) 클 권오철 기자

권중달 교수 애장본 '자치통감' 출판기념회 개최



권중달 교수가 12월 7일 오후 4시 남현동 주민센터 4층에서 정구복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와 제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애장본 <자치통감> 출판기념회 및 (가정)권중달통감장학회 발족식을 개최했다. 중국 북송시대의 역사가 사마광(1019~1086)이 쓴 '자치통감'(資治通鑑)의 한글 완역본이다. 중국어 이외의 언어로는 최초의 번역이다. 도서출판 삼하는 최근 번역서 27권과 해설서 '자치통감전'(資治通鑑傳)을 포함해 총 28권으로 된 '애장판'을 선보였다. 애장판은 소장할 만한 가치가 큰 책이라는 의미이다.

권중달 교수는 자치통감에 대해서는 자타가 공인하는 국내 최고 권위자이다. 1971년 중앙대 사학과에서 자치통감으로 석사학위를 받은 뒤 대만 정치대학에서 자치통감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그리고 1997년 번역을 시작하여 2000년 첫권을 출간한 뒤 2005년 원고지 9만 대 분량의 번역을 완료했다. 2006년 정년퇴직을 하고 2007년부터 자치통감 출간 대장정을 시작하여 2009년 12월 번역을 완료했다.

권중달 교수의 평생의 반려자인 도서출판 삼하 정철재 대표는 인사말에서 권중달 교수는 938년에 사마광에 의해 완성된 자치통감을 50여 년간 연구하여 세계 최초로 294권을 역주했다. 그 무언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는지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다른 데는 눈을 돌리지 않았던 그의 성품과 자치통감이 개인이나 사회 전체가 성숙하기 위하여 꼭 필요하다는 그의 의지가 작용했기 때문이었다고 생각한다. 세종대왕이 자치통감의 중요성을 깨닫고 전국에 보급하기 위해 애썼듯이 지혜의 양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출판해 줄 곳을 찾아 백방으로 노력했다는 출판해 줄 곳이 없어서 하는 수 없이 외자의 퇴직금으로 출판사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자치통감으로 얻은 수익은 전부 (가정)권중달통감 장학학회에 투입할 예정이며 권중달 교수의 연구정신과 학문적 업적, 자치통감 활성화와 보급은 물론 후학을 양성하여 학계에 힘이 될 수 있는 장학회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구복 교수는 축사에서 학자가 하나의 연구주제에 대해 50여 년간 괴골수로 연구한 사람은 권중달 교수가 거의 유일한 사람이라고 소개했다. 박지정 건국대 명예교수는 자치통감은 정치학이다. 자치통감을 읽지 않고는 정치를 해서는 안된다. 쿠파라이 칸이 원(元)을 만든 것은 자치통감을 보았기 때문이고, 세종의 치세도 자치통감에서 큰 도움을 받았다. 모택동이 중국을 통일할 수 있었던 것도 자치통감을 열일곱 번 읽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자치통감을 읽지 않으면 리더십이 나올 수 없다. 그래서 열째 있는 한국 정치에 자치통감 정신을 보급해야 하는데 이것은 개인이 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 모두 적극 후원하여 K-인문학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권중달 교수는 인사말에서 자치통감이 다루고 있는 시간적 범주로는 기원전 403년부터 기원후 959년까지 1362년간의 편년체 역사이다. 지역적으로는 서쪽 티베트에서 실크로드, 몽골, 만주를 거쳐 동쪽으로 한반도에 이르고, 북쪽으로 시베리아에서 남쪽으로 월남에 이르고 있다. 지역적으로 광범위하게 동아시아를 아우르고 있다. 또한 사마광은 스스로 한족이면서도 한족 중심의 역사를 기술하기 보다는 철저하고 공평하게 1300년이 넘는 객관적인 사료와 역사의 빅데이터

터를 한 책에 모아 두었다. 이런 자치통감과 인연을 맺은 지 벌써 50여 년이 되었다. 1명의 학자를 키우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지 모른다. 가족, 친구, 동료, 사회가 나를 학자가 길러줬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재정 형편상 감히 엄두도 못 내는 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자가 뜻을 기르는 사람이 중요하고, 이어받을 사람도 필요하다고 하여 후학을 위해 장학회를 설립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내년 3월 공식 출범할 예정인 장학회는 평생 자치통감 연구에 매진해 온 권중달 교수의 연구정신과 학문적 업적을 계승하는 연구자들에게 장학금도 줄 예정이다. 출판사는 500질 한정으로 책을 펴낸 뒤 판매 수익금은 가정 '권중달통감장학회' 기금으로 기부할 계획이다. 출판사 관계자는 "향후 '통감학 학술상'을 제정해 자치통감 연구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계획"이라며 "장학회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열어둘 것"이라고 말했다.

자치통감은 동아시아 역사와 정치의 보고(寶庫)로 제왕학의 교과서로 불린다. 권중달 교수는 왜 이토록 오랜 세월 동안 '자치통감'을 붙잡고 일로매진해 왔을까? 그는 애장판 '바른 역사적 시각을 위하여'에서 이렇게 말한다.

"그런 순전히 젊은 시절의 나를 매료시킨 왕부지 때문이다. 명말(明末)에 왕부지는 의병(義兵)을 일으켜서 청군에 대항했고, 그것이 실패하자 형양(陽)의 산 속으로 숨어들어 일생을 보냈다. 그는 생전에 무려 300여 권의 저술을 남겼다. 그 가운데 <자치통감>을 읽고 평론한 '독감론'은 철저하게 반청(反淸)적 애국심이 담겨있었다. 이러한 그의 삶이 젊은 나를 매료시켰고 그것이 <자치통감>에 관심을 가진 이유였다.

왕부지와의 만남 이후 50년 동안 '역사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라는 화두 가지고 생각을 했고, 강의를 했으며, 집필작업을 했다. 그 과정에서 역사를 이념(理念)의 틀로 보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었다. 그들이 역사를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이면에는 애국심(愛國心)이란 요인이 있다. 애국심은 역사연구를 시작하는 동인(動因)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역사연구는 과학적 연구과정을 거치며 객관적인 시각(視角)으로 귀결(結)되어야 한다. 오랫동안 역사에 관심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애국심으로 눈이 가려져 역사를 객관적으로 보지 못한다면, 그가 이해하는 역사는 굽혀진 것이고 그런 역사지식은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하거나 그의 정신을 왜곡시키거나 큰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나는 역사학을 공부하면서 애국심 같은 사상, 철학, 종교 등은 역사적 산물일뿐 역사를 지배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했다. 비록 역사연구의 출발은 사상이나 이념이었다고 해도 과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객관적 결론을 내릴 수 있어야 비로소 역사적 진실에 다가갈 수 있다. 이것이 바른 역사적 시각으로 조명한 지식이 필요한 이유이다."라고 말한다.

자치통감은 역사를 어느 한 부분만 읽고 단편적으로 보면서 애국심이나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이념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경계한다. 역사를 통시대적으로 아울러 볼 필요가 있다면 역사를 객관적인 시각에서 찬술한 자치통감이 제격이다. 자치통감의 지혜가 필요한 시대이다.

권행완 편집국장

추밀공파 회장단 확대 회의 개최

추밀공파 회장단 확대 회의가 12월 19일 11시 30분에서 13시까지 대중회 3층 회의실에서 권영선 고문, 권경서 명예회장, 권오돈 회장, 권영감 감사, 권동원 참의공 중종 이사장, 권경일 사무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먼저 권경일 처장이 2022회계년도 경과보고를 하고, 이어서 결산보고와 2023회계년도 예산안을 심의하였다. 권영감 감사는 감사보고에서 추밀공파관 마련 특별회계는 금년도 헌성금이 40,800,000원 입금되어 2022년도 10월말 현재 특별회계 재원은 545,565,299원으로 목표액 10억원에 비하여 54.5%에 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보고했다.

권오돈 회장은 감사보고와 같이 회관 마련을 위한 모금 현황이 상당히 미달된 상태이어서 대책마

련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권경서 명예회장은 이왕 시작했으니 뜻을 이루어야 한다. 또 관계 중종에 독려하는 물론 집요하게 설득할 필요도 있다. 건물시가는 올라가고 헌성금은 부족하니 단일 건물은 어렵다고 본다. 현재 보유한 금액 내에서 조그만 것이라도 몇 개 사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권동원 이사장은 해당 문중에 직접 찾아가서 상황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권영감 감사는 부동산 거품도 꺼지고 있는데 돈이 부족하면 다른 문중에서 차용해서라도 구입하는 방안을 고려해 봤으면 한다고 했으며, 권영선 고문은 동대문 시장 등 경제활동이 활발한 곳으로 모색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추밀공파 총회는 2023년 3월 중에 개최하



권행완 편집국장

"2022 능곡회 송년의 밤" 행사 개최

안동권씨 능곡회(陵谷會: 회장 권오성) 주최 "2022 능곡회 송년의 밤" 행사가 12월 16일 저녁 6시 30분 안동시 육사로 205 토마토(구, 만남의 광장) 지하 연회장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권기창 안동시장을 비롯하여 김형동 국회의원 부부, 권철환 안동총진흥장, 권광택 경북도의회의원 부부, 권기윤 안동시의회 의원, 권기현 능우회장, 권오의 대총회 안동사무소 사무국장, 권태형 안동농협조합장 예비후보, 권중구 안동농협 상임이사, 능곡회원, 능우회원 등 80여 명이 참석하였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바쁜 일정 때문에 송년의 밤을 축하하는 뜻에서 능곡회, 능우회원들과 함께 단체기념촬영을 하고 자리를 떠났다.

권용철 사무국장의 사회에 따라 진행된 이날 행사는 권기형 운영위원장의 개회선언에 이어 국기에

대한 경례, 시조 묘소 망배, 상음례, 감사패 전달, 회장 인사, 축사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권오성 능곡회장은 능곡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권오갑 능우회 사무국장에 감사패와 상금을, 회원 상호간 유대 강화와 능곡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권태우, 권계돈, 권용수 등 능곡회원 3명에게 우수 회원 패를, 능곡회 2, 4, 6분과에게 분과 상을 수여했다. 이들 분과는 분과 전원이 유대 강화하여 능곡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커서 상장과 상금을 수여했다.



권오성 회장



이밖에 능우회원에게 선물할 양말을 권기현 능우회장에 일괄 전했다.

권오성 능곡회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송년의 밤 행사를 맞이하여 회원들은 즐거운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능곡회 제37대 회장으로서 뿌리

깊은 나무는 쉽게 뽑히지 않듯이 그동안 능곡회가 성장해 왔음을 자부 한다"고 말했다.

권기현 능우회장은 축사에서 "오늘 같은 좋은 날 능곡회장님과 회원들이 송년의 밤을 준비 하느라 수고하셨다"고 격려했다.

보도부장 권영진